

01 교회소식

“영광스런 주께서 부활하셨네”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2016 부활절 공연 '부활'은 주님의 사역과 고난에 담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전달해 주었다.

02 생명의 말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해 하셨다.

03 세계 in 만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

오늘날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들의 온갖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권능.

04 간증

사뱃가에 심은 나무처럼 ...

영혼의 감금함을 채워줄 생명의 말씀을 찾아 온 박영란 목사와 심각한 요근 농양을 치료받은 한충현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32호 2016년 4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십자가 사랑, 라이브 공연으로 느끼다! 부활절 기념 공연, 뮤지컬 '부활'



본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공연 '부활'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였다. 뮤지컬 형식의 라이브 공연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기와 무용은 물론 음악, 안무, 무대·의상 디자인 등 직접 기획 제작하였다.

2016 부활절 기념 공연 '부활'이 3월 25일 금요철야예배 2부 시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이 공연은 뮤지컬 형식의 라이브로 진행되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이 더해졌다.

총 3막으로 구성된 '부활'은 임마누엘성가대와 닷시오키스트라, 연합찬양팀과 할렐루야반주단, 배우, 무용팀, 스태프 등 우리 교

회 성도들로 구성된 예능위원회와 공연전문 외부 스태프 등 360여 명이 참여하였다.

1막 '부활의 증거'에서는 십자가 처형 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회상하며 부활을 외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2막 '주의 길'에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흥겨운 노래와 안무로 표현되었고, 겟세마네 기

도와 잡히시던 밤, 그리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과 십자가 처형이 재현되었다.

3막 '부활의 소망'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확신에 찬 모습과 주님의 부활, 승천 장면이 그려졌다. 이번 공연에는 '부활2', '베드로의 고백', '주님의 사역' 등 새로운 만민찬양(신 31:19-22) 6곡이 더해져 더욱 감동적인 무대가 되었다.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금요철야예배 1부에 '십자가'(갈 3:13)라는 설교를 통해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으로 바뀌었으며, 이 십자가에는 희생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증거하였다.

아울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모진 고통을 겪으셨으니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2부 공연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는지 다시 한 번 깨달으며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4 Spring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4.3~ 4.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부활
- 우리의 열심은
- 사랑 1-5
- 믿음
- 1차 영혼육 5-8
- 창세기 강해 1-5
- 십자가의 도 1-5
- 요한일서 강해 21-27
- 요한계시록 강해 71-76

GCN TV설교

- 팔복 7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43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21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0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4 (김수정 목사)
- 천년 왕국 1 (김승진 전도사)
- 영의 공간 3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3
- 알콩달콩 어려쁜 울동 54
- 내 마음의 찬양 26
- 창조와 과학 24
- English 15
- 모두 드려요 40
- 뷰티풀 라이프 1
- 즐거운 요리 4
- 흥겨운 소리 1
- 옛날 옛적에 9
- 플로리스트 9

해외성회 프로그램

- 페루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6
- 희상 [시즌2] 6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케 하셨으므로 아무리 성경의 기록자가 많아도 한 사람의 글처럼 전혀 모순이 없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2.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경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으므로 해석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풀어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벧후 3:16).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사 34:16). 구슬이 꿰어져 보배가 되듯이 성경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보완되어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라야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어찌하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행함이 반드시 따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이루는 것, 곧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것을 뜻하지요.

이처럼 말씀의 짝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는다”며 진리를 잘못 알고 죄를 범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려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짝을 알아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3.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참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민족들의 사건과 등장인물, 장소나 관습 등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사실과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모두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9장 43~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이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고난, 부활 등을 예언하셨는데 신약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실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지요(창 3:15).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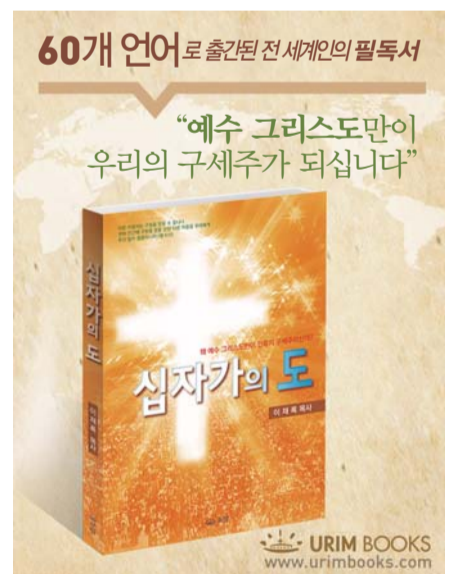
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하는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눅 1:26~33).

이사야 7장 14절에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 했는데, 예언대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베들레헴의 한 사관의 집승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1편 9절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시편, 스가랴 등에 예수님의 고난과 장사,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예언한 대로 신약에 성취되었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 7년 대환란, 천년왕국, 백보좌대심판 등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임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그 안에 기록된 계명들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며,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구원의 도가 밝히 기록된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으며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간 경작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천국과 지옥, 사람의 본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과연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 성경의 저자와 기록자의 차이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이며, 기록 연대는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1,600년간입니다. 기록자만 해도 서른 명이 넘지만 이들은 저자가 아니라 대필자일 뿐입니다.

예컨대, 노모가 아들을 통해 편지를 써도 어머니의 편지인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케 하셨으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오늘날도 펼쳐지는 성경 속, 하나님 권능의 역사

“여호와와 함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희한한 권능을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일부를 소개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믿음으로 악수하고 왼쪽 편마비를 치료받았습니다!”

존 에드워드 마무송 성도 (66세, 인도네시아)



2013년 1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고 점차 왼쪽 다리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중풍으로 인해 왼쪽 편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3주간 입원을 하고 퇴원한 후에도 약을 복용하며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팔은 잘 움직여지지 않았고 걸을 때에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경사진 곳이나 계단을 오를 때에는 쉽게 호흡이 가빴지요.

2015년 8월에 아내와 함께(사진), 결혼하여 한국에 사는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침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딸과 사위 덕분에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유방근종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받는 신기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하

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하게 되었지요.

2016년 1월, 저희 부부는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산상기도 중이시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도 만남을 위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하면서 믿음으로 치료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난과 질병, 재앙과 상관 없이 평안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당회장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도를 받은 후 당회장과 악수하였는데, 놀랍게도 굳어있던 왼쪽 팔 다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MRI 촬영 결과 : 노화소견 이외에는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음.

■ 권능의 손수건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나오는 희한한 권능의 역사가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만민의 주의 종과 일꾼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연합함이 온전해지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성경이 참임을 입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HANDKERCHIEF OF GOD'S POWER

“손수건 기도로 안 들리던 양쪽 귀가 잘 들려요!”

나카지마 치호에 집사 (71세, 일본 이다만민교회)



2015년 11월, 양쪽 귀에 통증이 있더니 귀속에 고름이 생기고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중이염이었습니다.

귀속의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안 들려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했지요.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니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왔을까?’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더니 딸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날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 유승길 담임 목사님에게 두 차례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그 뒤 귀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지난 2월 27일에는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귀에서 쏙 빠져 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양쪽 귀가 잘 들렸지요.

온 세상이 달라진 기분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만성 틱 장애’를 치료받았어요”

아내와 함께한 파트릭 령의 성도 (48세,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틱 장애’가 있어서, 심할 때는 몇 초에 한 번씩 어깨를 움찔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증세가 심하면 침대에 몸을 묶고 잠을 자야 할 정도였기에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 약도 복용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 뒤 40년 넘게 속수무책으로 만성 ‘틱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었고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2014년 2월, 저는 노방전도를 받고 에노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며 저도 치료받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하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했지요. 저는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교회에서 열린 손수건 집회에 사모함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노현숙 담임 전도사님에게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는 순간,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르더니 이후 머리카락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왔던 만성 ‘틱 장애’를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한국까지 왔습니다

박영란 목사 (50세, 1대대 3교구)

대학 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기도 중에 선교의 비전을 받은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8년에 미국 초교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교육목사로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던 샌프란시스코는 히피(hippie) 문화의 발상지이며, 교회들은 인본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 심한 흥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만 모여 사는 도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었

지요. 저는 날이 갈수록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수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찼는데, '왜 나를 비롯한 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마치 목은 때를 벗긴 듯한 영적인 개운함을 느꼈지요. 2013년 12월부터는 매일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씩 들으며 회개하였고, 성경의 수많은 난해구절을 시원하게 풀어 주시는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

동영상을 보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주무시는 날보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날들이 더 많았다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자문하며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갔고 어렴풋이 알고 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의 방향이 인본주의적 교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목회자가 우선적으로 성결한 마음을 이룰 때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성결을 이뤄야겠다고 결단하고 2015년 2월, 안식년을 맞아 남편(사진, 경대현 선교사)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목도하고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영적인 멘토를 찾아 갈급해하던 제 영혼을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풍성히 나타나는 만민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2015년 1월경, 운동할 때마다 통증이 없기를 반복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 쪽에 염증이 있어 뼈와 근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온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치료의 역사를 보았고, 저 역시 골절되어 잘못 붙은 오른쪽 발목뼈가 기도받고 정상이 되는 권능을 체험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아무 걱정하지

않았고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4월경부터 급격히 살이 빠졌고 심한 수면장애가 생겨 얼굴이 누렇게 변했으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배가 불러오고 배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웠던 요근 농양을 치료받았습니다

한충헌 집사 (37세, 1대대 1교구)

2015년 11월 25일, 병원 검사결과 '요근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농양이 제 양쪽 배에 딱 차 있다고 하시며 농양으로 인하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고 척추 주변의 근육이 녹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농양을 빼지 않으면 농양주머니가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는 데 농양의 양이 많아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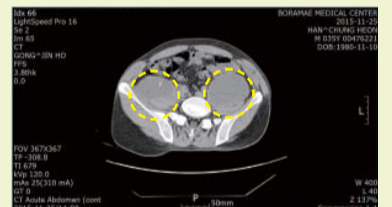
저는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제 신앙을 더욱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쪽 농양을 빼내는 시술을 시작하여 하루에 적게는 100cc, 많게는 500cc, 8일간에 걸쳐 1800cc의 농양을 빼내었습니다. 3일 후 다시 CT촬영을 해 보니 오른쪽 농양은 거의 빠졌는데 왼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사는 농양을 마저 뽑기 위해 이를 뒤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11월 29일(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우치며 저는 일꾼으로서 충성한다고 하였으나 뜨거움이 식어지고 변해했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한 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왼쪽 농양을 빼내기 위해 시술하였는데, 오른쪽과 달리 농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시술이 잘못된 것 같다면 12월 3일, 엑스레이와 CT를 재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농양이 왜 없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요근 농양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후 신속히 회복되고 체중도 늘어나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제가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려 주시며, 질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기도받기 전 : 양측 요근 내에 6~7cm크기의 농양이 형성되어 있음.



▲ 기도받은 후 : 양측 요근 내에 6~7cm크기의 농양이 소실되어 있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초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5-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선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8-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